

국민산업, 무안공항 면세점 탈락 후폭풍

무안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공개경쟁입찰에서 시티플러스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최근 3년간 매출액을 선정 기준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지역 중소기업을 배제’ 한 것이라는 후폭풍이 불고 있다.

29일 면세업체 등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전남 소재 업체인 ㈜국민산업과 인천 소재 업체인 시티플러스가 참가해 사업제안서(80%)와

임대료 요율(20%) 등을 평가해 1순위 업체로 시티플러스를 선정했다.

시티플러스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하고 있는 면세유통 전문기업으로 최대주주는 JTC(일본 사후면세점 운영업체)의 자회사 케이박스(70%)로 알려졌다.

이번 면세사업자를 선정을 위한 한국공항공사 평가항목에 ▲최근 3년간 면세점 매출액 가산점 8점·최저 0점, ▲운영

경험 최고 4점·최저 0점으로 소규모 공항에서 영업하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평가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계는 “시티플러스는 매출 규모가 600억 원이 넘는 회사로 지역 중소기업과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면서 이번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시티플러스

평가항목 중 최근 3년간 매출 중소기업 불리
관세법 명시된 중소기업 2회 연장 가능 외면

의 면세점 운영 자격 시비가 떠오르고 있다. 시티플러스는 지난해 불법 면세품 판매로 관세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고 이익을 제기해 청문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김포공항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특허권을 반납하기도 했다.

여기에도 2018년 개정된 관세법은 면세 운영자의 특허 기간을 투자 대비 손익을 고려해 대기업은 1회, 중소기업은 2

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의 시각도 감지되고 있다.

국민산업 손세현 대표는 “지난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해오며 메르스 사태와 사드 보복,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큰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중소기업에 불리한 평가 기준인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입찰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에 의해 특허만료 6개월 전 광주세관에 ‘특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공항공사와의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이유 거부당했다”며 “관세법 취지와 다르게 관련 입법이 지연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산업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영업 손실을 크게 겪으면서도 지역 공항의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왔으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최근 코로나 피해업체들이 많이 찾는 영업점을 방문해 코로나 피해상당 전담창구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앞장

광주신보 지점에 직원 파견 코로나 보증상담 등 대행
송중욱 은행장, 현장 의견 청취 영업점 릴레이 방문

광주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중 대부분이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대출에 쏠린 상황에서 자금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에 광주은행 직원 12명을 파견해 협업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광주신용보증재단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영예로자

금 대출상담이 쏠리면서 이른 아침부터 대기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 신청자에 비해 업무담당자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보증상담 및 현장실사가 지연되고, 보증서 발급과 실제로 대출을 받기까지는 1~2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직원들을 파견해 상담 및 심사 협조 등 다양한 업무를 협업하고 있으며,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피해상당 전담창구를 개설해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방문 및 보증약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로써 고객은 대출 신청을 위해 광주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이고, 광주은행에 한번 방문으로 보증상담과 보증약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로 인

한 경기침체가 가중되면서 우리 지역민들의 근심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며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상생의 힘을 불어넣는 일에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자체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해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의 특별지원을 시행했다.

/서미애 기자

코로나19에 딸기 수출길 막힐라

농식품부, 항공물류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딸기 수출농가와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류비 예산을 기존 412억원에서 446억원으로 늘렸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축소에 대응해 선박을 이용한 딸기 수출도 지원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로 딸기를 처리하면 선박을 이용하더라도 딸기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

했다.

농식품부는 딸기 수출이 끝나는 5월까지 선박 수출을 지원한 뒤 선박 수출 매출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비규격품 딸기를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출 딸기 가공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농산물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업체와 농가들이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며 “정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에 나서서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T, 코로나 극복 임금 반납 동참

판로확보 어려운 농식품업체에 사용

한국수산물유통공사(aT)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고통 분담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원과 간부급 직원들이 임금 반납에 동참한다.

29일 aT에 따르면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상임임원은 월 급여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고, 1급 이상 간부급 직원은 일정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동참한다.

반납한 재원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업체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aT는 꽃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제동 화훼공판장 내 420개 입주사들의 임대료를 50% 인하해주는 한

편, 서울 aT센터와 지역본부 사옥에 입주한 80여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20~30%를 인하해주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왔다.

이 밖에도 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과 취약계층 생활시설에 대한 긴급방역, 생활안정용 쌀 지원, 저소득층 노인 대상 마스크 기부 등 꾸준한 지원과 도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임직원 모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금감원, 바젤Ⅲ 최종안 6월 조기 시행

중기 대출 위험 가중치·기업대출 부도 손실률 감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고자 바젤Ⅲ 최종안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금융사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을 올해 6월부터 은행권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1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1년 반 앞당기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조치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손실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국민 등 대형 시중은행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은 BIS 비율이 1~4%포인트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민우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방문한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정상 영업

전남 9번째 환자 마스크 착용 방문…직원은 자가격리

태국 여행을 다녀온 코로나19 전남 9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이 정상营业을 하기로 했다.

29일 광주신세계는 광주 서구 보건행정과 등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날 정상营业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9번째 확진자 A씨(25)가 지난 26일 다녀간 광주신세계 구찌매장도 정상营业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A씨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직원 1명은 2주간 격리조치 됐다.

A씨는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상품 안내와 결제 과정에서 접촉한 직원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는 서구청 보건행정과와 공동으로 CCTV를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26일 백화점내 다른 이동경로는 없는 걸로 확인했다.

서구청과 광주시는 광주신세계가 매일 자체적으로 내부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는 점과 확진자가 방문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했던 점을 고려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29일 백화점

정상营业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26일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전층을 방역했다”며 “고객 및 직원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방역활동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매장 입구에 터널형 소독 분사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태국을 여행한 뒤 귀국한 A씨는 동남아시아 여행지라 유럽과 미국 입국자들을 상대로 실시되는 특별검역 절차 없이 공항을 빠져나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공항 제

망고·올리브 국내 재배 늘어난다

고품질 농산물 선호

수입 과일·채소의 대표주자로 여겨지

던 망고와 올리브 등의 국내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국내 아열대작목 22종의 재배 현황에 따르면 지

난달 기준 국내 전체 아열대작목 재배 농가는 1,376호로 재배 면적은 311.4ha다. 생산량은 5,697.3t이었다.

이 가운데 아열대 채소 재배 농가는 848호, 재배 면적은 147.4ha, 생산량은 2,819.5t이었다.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는 528호, 재배

면적 164ha, 생산량은 2,877.8t이었다.

아열대 채소 가운데 재배 면적이 넓은 작목은 여주, 강황, 삼채 순이었다.

아열대 과수의 경우는 망고, 백향과, 바나나 순으로 파악됐다.

농진청은 “아열대 작목 가운데 망고, 파파야, 용과, 올리브의 재배 면적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다”며 “파파야는 2018년 3.5ha에서 올해 15.1ha로

331.4% 증가했고, 올리브는 같은 기간 0.2ha에서 2.5ha로 1,150%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자체에서 신소득작목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국내에서 재배된 고품질 신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망고는 제주도와 전남 영광, 파파야는 경남 진주·충남 부여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반면, 강황과 백향과는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확보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농진청은 “전국에서 약 29ha 규모로 재배되는 바나나는 제주 지역에서 경남·경북 등 내륙지역으로 재배 면적이 넓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국내 아열대작목 재배면적

